

'138만 수산인 대표', 김진태·임준택·임추성 '3파전'



25대 수협중앙회장 22일 선거
내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
업종별·지역적구도 주요 변수로

오는 22일 치러지는 수협중앙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전국 138만 수산 산업인을 대표하는 제25대 수협중앙회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오는 8일까지 이틀간 수협중앙회 회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현재 예비후보에 등록된 후보는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62),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62),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61) 등 3명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후보자 등록을 거쳐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등록을 마쳐야 알 수 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3명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태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부안수협조합장에 당선된 후 부안수협을 전국 5위권의 상위조합으로 성장시키고 12년 연속 흑자 운영을 해온 점이 강점이

다. 김 예비후보는 "각 지역 회원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수협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어업 지원에 집중해 어업인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수산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예비후보는 지난 2015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후 지난해부터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직무대행도 맡고 있다. 그는 대형선망업계 회생을 위해 휴어제와 감척사업에 국고 지원을 이끌어낸 추진력과 탄탄한 정·관계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꼽힌다. 임 예비후보는 "매년 수 천 억원 규모의 은행수익에도 어민을 위해 쓰이는 돈은 없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이란 시대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추성 예비후보는 지난 1999년부터 후포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남다른

수협중앙회장 예비 후보자별 공약



- | | | |
|---|--|---|
| <p>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과 혁신 통한 성장 ▲무분별한 바다생태계 파괴 적극 대처 ▲복지회원조합 기틀 마련 ▲중앙회 역할 강화, 혁신 | <p>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월한 경제사업 리더십 ▲공적자금 해소에 필요한 정관계 네트워크 구축 ▲초일류 협동조합 도약 위한 인적자원 육성 | <p>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지원위한 조직개혁 ▲정부와의 협력 강화 ▲노량진수산시장 등 자회사 경영 정상화 |
|---|--|---|

(자료=수협중앙회)

지도력과 통찰력으로 수협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는 "어업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어민과 회원조합을 개혁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며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주의의 인사, 회원조합이 부서를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프레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

는 지구별·업종별 구도, 지역적 구도에 따라 선거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구별·업종별 구도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지구별 조합 출신의 선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중앙회장 선거인단의 표는 총 92표로 지구별 수협이 70표, 업종별 수협이 20표, 수산물가공 수협이 2표다. 그러나 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제 형태로 진

행되기 때문에 조합장들에게 지구별 업종별 수협구분은 의미를 얻지 못할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지역구도도 변수로 떠오른다. 현재 3명의 후보 중 2명은 부산과 경북 출신이며, 1명은 전북 출신이다. 소속지역에 따라 조합장의 표심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 김원권 회장의 의중도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장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 임원까지 모두 공정한 선거를 위해 특정후보를 위한 행동이나 발설도 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8일까지 후보자 등록 후 9~21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22일 치러진다. 당선인은 수협임원선거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선거권자는 수협중앙회장 1명과 회원명부에 올라있는 전국의 업종 지구별 수협 조합장 91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뱅크誌 "신한금융그룹, 韓 1위 금융브랜드"

6년 연속 선정... 지속가능 역량 인정

신한금융그룹은 더 뱅커(The Banker)지가 발표한 '2019 글로벌 500대 금융 브랜드 (Top 500 Banking Brand)'에서 대한민국 1위(글로벌 67위) 금융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2012년부터 6년 연속 국내 1위 금융 브랜드로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무 성과를 포함해 전 그룹사가 추진하는 '원 신한(One Shinhan)' 브랜드전략 및 그룹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 선포 등 지속가능 역량을 높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평가받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대한민국 1등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20 스마트(SMART)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가운데)이 정규직 전환채용직원들과 포즈를 취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 비정규직 180명 정규직 전환

"비용절감 보단 내부결속에 주안점"

우리카드는 비정규직 근로자 180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채용했다.

정부의 청년실업 감축 기조와 우리금융그룹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인사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채용은 그동안 과격직 및 사무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카드는 서류 및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총 180명을 선발했고, 신규 채용된 인원은 설 연휴를 마치고 7일 첫 출근을 했다.

우리카드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숙련도 높은 인력의 반복되는 이탈로 인한 업

무 공백을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향상을 통해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지난해도 우리카드 분사 이래 최대인 신규 직원 100여명을 채용, 이달 말 부서배치를 완료해 선도 카드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으나 경영진은 비용절감을 위한 희생보다는 노사 간 신뢰가 바탕이 된 단단한 내부 결속으로 어려운 카드사의 경영환경을 헤쳐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민영 수습기자

글로벌파이낸스誌가 선정한 우수 은행

금융산업 발전 기여... '韓 최우수 PB은행' 선정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하버드 클럽(The Harvard Club)에서 개최된 글로벌 파이낸스지 선정 '베스트 프라이빗 뱅크 어워드 2019'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고 PB은행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상은 PB 고객들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최고의 은행에 수여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PB은행상을 수상하게 됐다.

KB국민은행은 PB 브랜드인 골드앤와이즈(GOLD&WISE)를 내세워 '지혜로운 자산관리'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전국적으로 21개 PB센터와 67개의 골드앤와이즈 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50개는 은행·증권 복합점포로 운영 중이며,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류영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왼쪽)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하버드 클럽(The Harvard Club)에서 개최된 '베스트 PB시상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B부문 역량 인정...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 수상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세계적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 파이낸스' 주관 '제4회 PB어워드' 시상식에서 '2019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PB은행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제1회 PB어워드'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2017년부터 3회 연속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PB은행'에 선정되면서 총 4년 연속으로 PB부문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파이낸스'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은 1995년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시작 이래 자산관리 부문의 전문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왔다"며 "최근 로보어드바이저 'HAI-Robo'가 출시 11개월 만에 약 15만좌 신규 달성에 성공하는 등 디지털을 활용한 최첨단 자산관리 전문성과 노하우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주요 PB은행'에 선정되면서 총 4년 연속으로 PB부문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파이낸스'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은 1995년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시작 이래 자산관리 부문의 전문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왔다"며 "최근 로보어드바이저 'HAI-Robo'가 출시 11개월 만에 약 15만좌 신규 달성에 성공하는 등 디지털을 활용한 최첨단 자산관리 전문성과 노하우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주명희 KEB하나은행 청담동골드클럽 PB센터장(왼쪽)과 조셉 지아라루토 글로벌파이낸스 발행인 겸 편집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글로벌 파이낸스 주관 '제4회 PB어워드 시상식'에서 '2019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PB은행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우리은행 캄보디아 공유차량 전용 금융상품 제공

글로벌차량공유업체 그랩과 MOU

우리은행은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그랩(Grab)의 캄보디아 법인과 그랩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법인인 WB파이낸스 및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와 Grab

캄보디아는 제휴를 통해 그랩 드라이버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는 등 그랩 드라이버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은 지난 2017년 캄보디아에 진출해 프놈펜과 시엠립에서 오토바이, 툽툽, 승용차 등의 차량공유 서비스 및 그랩 리워즈, 기업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폴에 본사를 둔 그랩은 지난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1월 1억3000만 다운로드 기록에 이어 30억건의 운행 기록을 달성했으며,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33개 도시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글로벌 디지털 전략으로 디지털뱅킹 플랫폼 활용, 글로벌 디지털 선도기업과의 제휴 등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